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 7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개강

3월 27일(월) 오후 2시, 강남 YMCA 대강당에서,
'목회와 영성' 주제로 총 10주간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 7학기가 내일(3월 27일) 오후 2시에 강남 YMCA 대강당에서 개강한다. 6월 5일까지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하는 이 세미나는 제 1교시(오후 2시 - 3시 30분)에는 5학기부터 계속해 온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가 있고, 제 2교시(3시 50분 ~ 5시 20분)에는 '목회와 영성'을 주제로 하여 여러 강사들의 특강이 있게 된다. 특강 강사는 임옥 목사, 김정우 박사, 이상훈 박사, 원종천 박사, 로간 박사, 김의환 박사, 임영수 목사, 정장복 박사, 박형용 박사, 오성춘 박사 등이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새로와지고 성숙해지려면 먼저 강단이 새로와져야 하며, 강단이 새로와지기 위해서는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겨 지난 1992년 3월에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이번에 일곱 번째를 맞는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매학기 7 ~ 800명의 전국 목회자가 참석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며 목회를 위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는 '목회자들의 영적인 재충전의 장'이 되고 있다.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프로그램

1995년 3월 27일 ~ 6월 5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주제: 『목회와 영성』

실시일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3/27		교회갱신과 영성 임 옥 목사(한기총 회장)
4/3	로마서강해	선지자들의 영성 김정우 박사(총신대 교수)
4/10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요한 신학에 나타난 영성 이상훈 박사(서울신대 교수)
4/17		청교도들의 영성 원종천 박사(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4/24		요나단 에드워드의 영성 S. 로간 박사(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5/8		성령운동과 영성 김의환 박사(총신대 총장)
5/15		설교자와 영성 임영수 목사(영락교회 담임)
5/22		예식과 영성 정장복 박사(장신대 교수)
5/29		바울 목회와 영성 박형용 박사(합동신학교 교수)
6/5		기술사회와 영성 오성춘 박사(장신대 교수)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 수련회 개최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동문회(회장: 정경화 목사)에서는 동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실제적인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5월 15일(월) 저녁부터 16일(화) 오전까지, 1박 2일간 광성 수련원에서 수련회를 갖기로 하였다. 첫날은 총회와 기도회로, 둘째날에는 특강의 순서를 갖는다. 회비는 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 ☎517-7651 ~ 5)으로 하면 된다.

미래지도자를 위한

* 기도결연예배 *

고등부에서는 고 3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취업과 진학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후원을 하는 모임을 해마다 가져왔다.

올해도 다음과 같이 후원자와의 결연의 자리를 마련하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때 / 1995년 3월 26일(주일) 오전 11시
- 곳 / 고등부 예배실(4층)

*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오늘 찬양예배 시 3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환영회를 가집니다.

환영회는 새가족 여러분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우들과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3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3월의 새가족 (2월 26일 ~ 3월 26일) *

김동조	이준수	변소애	이용희	신동재	김혜경	신중배	손희정	장 덕	임인자
장지윤	장지호	신정희	박창수	장병유	이기성	송헌주	강정수	고미란	서 희
권오례	이준태	신주식	김용욱	권창순	권수경	백성의	류지현	윤주영	전낙구
허금희	전기섭	김옥경	김경석	김종일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들			

창세기 강해



하나님의 이름

(21장 32 ~ 34절)

이종운 목사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이름이 이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으로는 그 인격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육천 번,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이천 번 이상이 나와 있지만 한 두번 언급된 이름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33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끝없는 시간(endless)이나 무시간(timeless)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엘 올람’이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는 ‘비밀, 알려지지 않은, 숨은, 감추어진’의 뜻으로 레위기에서는 ‘언제든지’라고 번역했고(25:32), 여호수아에서는 ‘옛적에’(24:2)라고 번역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셀 수도 없고 헤아려 알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영생, 영원, 영존이라고 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러한 속성을 가지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시100:5)라는 구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쓰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단계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주가 되시는 ‘천지의 주재’(창14:19)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분, 엘 엘리온’(창15:1)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전능한 왕, 엘 사다이’(창17:1)로 나타나셨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복을 충족히 받으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제까지 신실함으로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에도 지키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은 과거의 잘못 때문도 있지만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일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하시며 불변하시는 ‘엘 올람’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시 90:1),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시 90:17)라고 간구합니다.

2. 근심하지 말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마6:25 ~ 34).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의심 많고 염려가 많았던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께 꾸중도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며 다른 사람에게도 염려하지 말 것을 권면을 합니다(벧전5:7).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우리는 확실히 의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염려하지 말 것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원리를 잘 안 사람입니다. 태초부터 계시고 미래의 알지 못하는 시간까지 주재하시는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백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3.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 여호와 - 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 엘 엘리온 - 영생하시는 하나님
- 엘 사다이 - 전능하신 하나님
- 여호와 이레 - 예비하시는 하나님, 제공하시는 하나님

- 엘 라이 - 감찰하시는 하나님
- 아도나이 - 주(主) 하나님
- 여호와 사바호스 - 만유의 주
- 여호와 닛시 - 여호와 나의 깃발(旗), 승리의 하나님
- 여호와 메카데쉬켄 -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 여호와 로이 -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 여호와 로페 - 치료하시는 하나님
- 여호와 치드케누 -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 여호와 살롬 - 평화의 하나님
- 여호와 삼마 - 거기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빛이요 목자장이시며 왕중 왕, 생명이신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어 함께 하시며 오늘도 동행합니다.

✦ 순례자 컬럼 ✦

패자에서 승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처참한 굴욕 속에서도 승리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십자가 위의 수난은 낮아짐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무능하게 못박혀 죽으신 그 분은 고난과 죽음과 패배를 당했으나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왔으며 이로써 죄와 죽음은 물러가게 되었다.

성경은 못박혀 죽은 이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존귀한 자임을 선포한다. 거기서 그는 만물을 지배하시고 절망 중에 허덕이던 제자들에게 겸허하신 전능자로 나타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재림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못박히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의 동일성을 인식케 된다. 바로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 안에서 패자이자 동시에 승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초등부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기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목소리와 노래를 주시고 모든 악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우리들은 시간과 물질을 드려 연습하고 새로운 악기들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제게 주어진 조그만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바이올린을 예배시간에 연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쑥스러워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힘들었지만 그 때마다 바이올린을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네가 지금 배우려는 악기는 네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라고 하시던 말씀이 새로운 용기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주하던 언니가 손을 다쳐 함께 연주하지 못할 때에도 잘

■우리는 지금

'서울교회 오케스트라'의 꿈을 키우는 초등부 찬양대

권 정 민 (초등부 찬양대원)



견디며 예배 시간에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악기 가방을 들고 4층 초등부실로 모여드는 우리 친구, 동생들을 바라보며 제게는 또 다른 기쁨이 생긴답니다. 연주 전, 조율을 할 때에 정리되지 않은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우리들의 머금은 미소 속에는 미래

에 훌륭한 연주가로서 우리교회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단원이 되는 꿈이 담겨있답니다.

우리 초등부 찬양대에는 약 60명의 대원이 있고, 플룻 2명, 바이올린 8명, 클라리넷 1명으로 구성된 악기 연주팀이 있으며 저는 악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주팀에 함께 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악기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반가운 뒷소식을 들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친구들이 더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할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초등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부활절과 가을 비전 2000운동 때에 가질 제 3회 초등부 찬양대 발표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꼭 오셔서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95년 이 한해가 지나면 초등부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후회없는 보람된 시간을 보내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방일기 - 보라, 과부의 열전 두 렷돈을!

"이 헌금 흠이 되고, 이 정성 돌이 되어..."

최병호 (목사, 3·4교구 지도)

강 남구 수서동 도시개발단지에 사시는 김재원 집사님. 1914년 1월 1일 생이니 올해로 80이 넘는 고령인 데다가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거동이 어렵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를 타고 가끔 햇빛을 볼 수 있을만큼은 움직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 앉기도 힘들만큼 기력이 없다. 부인 최순애 권사님의 헌신적 간병도 한계에 부딪혀 이제는 수서 복지관을 통해 자원봉사자 0모 양이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와 집안 청소나 간병을 돕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자녀들마저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김 집사님은 최근 동회의 극빈자 대상으로 선정되어 끼니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집사님의 머리맡에는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우리교회의 어떤 성도가 사다준 라디오 카세트가 있어 온종일 찬송가와 설교 테이프를 들으며 신앙을 키워가고 있다고 했다.

이 집을 심방한 지난 주 월요일, 참석한 모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가난하다거나 병든 것이 측은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소망을 이야기하려 했던 이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김 집사님의 믿음에 감격했기 때문이었다.

김집사님은 평생에 서울교회가 예배당 짓는 일에 한 몫을 하고 싶었는데 가진 것은 없고, 안타까운 마음만 있다며 곱게 다린 명주 손수건에 싸인 무엇인가를 내놓으셨다. 성도들이나 이웃들이 문병차 찾아와 먹고 싶은 것 사드 시라고 놓고 간 돈을 차곡 차곡 모아왔던 것이다. 목사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김 집사님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방문한 이종운 목사님을 뵈자 작은 정성이나마 예배당 짓는 일에 쓰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심정으로 헌금을 바친다고 했다.

김 집사님은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했다. 그저 입만 벌린 채 눈에서는 계속 눈물만 흘렸다. 지난 날에 대한 단순한 회한이거나 무력한 현재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할 수 없는 것이 원통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이 목사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이 헌금이 흠이 되어 예배당 지을 터가 되고, 이 정성이 돌이 되어 민족과 세계전교의 성전이 될터이니 김 집사님과 최 권사님의 가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듯 과부의 열전 두 렷돈과 같은 헌금을 받으시고 집사님의 소원대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울며 기도하셨다.

예배당 짓기를 소원하는 이같은 눈물겨운 마음들이 모이고 하나될 때, 그 때에 하나님의 전은 세워지게 될 것이라 말하며 참석한 우리 모두는 눈물을 닦았다.

▶정확금, 감사드립니다. (농어촌 목회자 자녀에게 수여한 장학금을 받고)

3대째 주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게 됨으로 배움의 길이 열린 것도 감사한데, 서울교회가 제게 주신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따뜻한 가정에서 모태 신앙인으로 자라오면서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험난하고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기도하며 서원하였습니다.

서울교회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송명중 (월등남부교회 송기영 전도사 자녀) 올림 -

■ 자녀양육의 청지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기교육을

박명석 (집사, 탁아부 교사)

우 리에게 맡겨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탁아부에 와서 예배시간이 되면 먹던 과자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두 귀를 쫓긋 세우는 아이들

은 다름없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병아리같은 입술을 벌려 찬송하며, 단풍잎 같은 손을 모으고 새별같은 두 눈을 감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운 후에는 '아멘'을 할 줄 아는 탁아부의 어린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먼저 온 자 먼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일찍부터 외국어에 컴퓨터까지 배우게 한다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양과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마음 밭에 주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하나씩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리면 어릴 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탁아부에는 30여 명의 교사들이 주일

I부와 II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들을 맡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탁아(託兒)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전해 주며 찬송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울던 아이들도 두세 주만 지나면 잘 적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기들의 조기교육을 담당하는 탁아부를 찾아주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탁아부집회

· 때 / 주일 9시, 11시 · 곳 / 2층 탁아부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① 사랑과 지속적 관심으로

민족복음화에 기여하겠다는 선한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농어촌 100교회 지원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후원하고 있는 교회에 부활절에 정성이 담긴 특별한 선물을 보내기 위해 고심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교인 가족수련회가 없는 올해 여름에는 전도대를 구성하여 지원교회를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어촌 100교회 지원 운동』은 이같은 각별한 관심과 기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1/4분기 후원금이 완납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자매교회 후원이 1회(한 달)에 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후원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어촌 교회와의 결연은 1년동안의 후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셋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이면 농어촌 교회들에 후원금을 일제히 보냅니다. 따라서 매월 셋째 주까지는 그달의 후원금을 현금해 주셔야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붉은 색 봉투를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일회분만 후원하실 분은 본부에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달(1, 2, 3월)의 것을 미처 못 내셨다면 이제라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잊지않고 제 때에 내는 일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정성이 농어촌 교회에는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② "김밥 싸야 하는데..."

갑상선 수술을 하고 누워 계신 J권사님은 병문안 간 여러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염려는 아랑곳 않고, "빨리 일어나야 세미나에 오시는 목사님들 드릴 김밥을 싸 수 있을텐데..." 하시며 조급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앞으로 열 주동안 월요일 새벽마다 김밥을 맡겨 즐거워하실 권사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③ 여덟명이 서초구와 강남구를 빙빙 도는 이야기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포동이 주소인 우리 교회는 서초구에 있고, 반대편은 강남구입니다. 차량관리부의 여덟 명의 위원들은 주일 낮이면 강남구와 서초구를 여러번 빙빙 돌아야 합니다.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차 안내는 해야 하고, 교회부근의 주차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원 주차장과 초당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교회쪽의 주차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쪽에 있는 제일은행 주차장, 대남빌딩 주차장은 여전히 반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관리 위원들은 교회 앞이나 도로에 무리하게 주차해 놓은 차를 건너편에 가져다 두고 다시 길을 건너오는 일을 여러번 되풀이 해야 합니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 건너편에 차를 세우는 수고를 하신다면 차량관리부원들의 수고가 많이 줄 것입니다.

· 목회자 동정 · 교우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29일 ~ 31일 광성기도원에서 열리는 장로회 신학교 사경회를 인도한다. 31일 오후에는 육군 사관학교 51기 임관 수련회에서 특강을 한다.
- 장 덕, 임인자 성도 가정은 지난 21일, 논현동에 필라클래식(강남점)과 동서 골프스쿨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547 - 0733 ~ 4)
- 조영식, 이관모 집사 가정은 지난 23일, 신사동에 분식집『손맛』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546 - 5089)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술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주님의 십자가를 목상하며, 회개와 근신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3.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새로와 질 수 있도록
4. 제 6차 킷치 신학세미나의 준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